

배터리 성능·편의사양 강화...현대차 친환경차 잇단 출시

더 뉴 아이오닉 5, 1회 충전 주행거리 485km로 높고 가격은 동결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고객 선호 사양 기본화 상품 경쟁력 확보 아이오닉 6 블랙 에디션, 블랙의 세련미 표현 디자인 특화 패키지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5 신형 모델과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모델 등 친환경 차량 라인업을 잇따라 공개했다.

현대자동차는 4일 상품성을 대폭 강화한 전용 전기차 '더 뉴 아이오닉 5'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새로워진 아이오닉 5는 2021년 출시 이후 3년 여만의 상품성을 개선해 선보이는 모델로, 특히 배터리 성능과 고객 편의사양 면에서 대폭 강화됐다.

신형 아이오닉 5는 84.0kWh의 4세대 배터리가 탑재돼,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복합, 2WD 모델 기준)가 기존 458km에서 485km로 늘어났고, 최신 인포테인먼트-편의 사양을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

특히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cNC'를 탑재하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적용 범위를 확대해 고객에게 SDV 기반의 첨단 소프트웨어 경험을 제공한다.

또 승차감과 정숙성이 향상돼 전반적인 주행 감성이 높았고, 2열 사이드 에어백 추가와 차체 보강을 통해 충돌 안전 성능을 높였다.

디자인은 기존 모델을 바탕으로 보다 강인한 느낌의 외장과 편의성을 높인 내장 디자인을 갖췄으며, 고성능 모델인 N 라인이 추가됐다.

현대차는 신형 아이오닉 5 상품성을 대폭 강화하면서 가격도 동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기차 세제혜택 적용 후 기준으로 롱레인지 모델 ▲E-Lite 5240만원 ▲익스클루시브 5410만원 ▲프레스티지 5885만원이다.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에 따라 실 구매가격은 더 낮아질 수 있다.

현대차는 이날 연식변경 모델인 '2024 코나 일렉트릭'과 디자인 특화 패키지인 '2024 아이오닉 6 블랙 에디션'을 함께 출시하며 고객에게 더욱 다양한 전기차 선택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2024 코나 일렉트릭에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운전석 전동 시트 ▲1열 통풍 시트 ▲2열 에어벤트 등 고객 선호 사양 위주로 구성된 새로운 엔트리 트림 '모던 플러스'를 신설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충전 로직 개선을 통해 급속충전 시간이 43분에서 39분으로 단축시켰다.

이번에 함께 출시된 2024 아이오닉 6 블랙 에디션은 블랙 색상의 ▲20인치 매트 휠 ▲전·후면 범퍼 하단 몰딩 ▲사이드 실 몰딩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전면 매트 엠블럼 등이 적용돼 블랙의 세련된 아름다움을 표현한 디자인 특화 패키지다.

블랙 에디션은 익스클루시브 플러스 트립부터 선택할 수 있다.



더 뉴 아이오닉 5.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현대차는 2024 코나 일렉트릭과 2024 아이오닉 6의 가격을 인하여 고객의 구매 부담을 낮췄다.

현대차는 또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했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적용해 경제성과 친환경 가치를 추구하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특화 사양과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화함으로써 상품 경쟁력을 확보했다.

스타리아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최고 13km/l의 뛰어난 연비를 비롯해 시스템 최고 출력 245마력(엔진 최고 출력 180마력), 시스템 최대 토크

37.4kgf·m(엔진 최대 토크 27.0kgf·m)의 우수한 성능을 갖췄다.

또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에는 특화 사양인 '정체 구간 특화 제어' 기능이 장착됐다. 정체 구간 특화 제어는 내비게이션 도로 정보와 차량 주행 상태를 종합해 저속 정체구간에서 변속 패턴과 엔진 시동 시점을 전략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가속과 감속에 따른 불필요한 조작을 줄여주고 승차감을 향상시켜 준다.

이밖에도 현대차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에 ▲전방 주차 거리 경고 ▲하이패스 ▲미세먼지 센서, 공기정

정모드, 오토 디포그, 애프터 블로우 기능이 모두 포함된 풀옵션 에어컨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후방모니터 등 고급 사양을 기본으로 탑재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뉴 아이오닉 5는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자 배터리 성능 향상, 편의 사양 추가 등을 통해 전반적인 상품성을 대폭 끌어올린 모델"이라며 "2024 코나 일렉트릭과 아이오닉 6 블랙 에디션을 함께 출시해 고객에게 다양한 전기차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전기차 시장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국내 친환경차 누적 등록대수, 지난해 처음 LPG차 넘었다

LPG차 신차 등록 매년 줄어...상용차 시장선 인기 유지될듯

국내 친환경차(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차) 누적 등록 대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액화석유가스(LPG)차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LPG차는 휘발유·경유차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차량 유지비가 저렴하지만, 자동차 업계의 전동화 전환에 따라 고전하는 모양새다. 다만 상용차 시장에서는 당분간 인기를 유지할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차를 합친 국내 친환경차 누적 등록 대수는 총 212만 1000대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LPG차 누적 등록 대수 183만 3000대를 넘어선 수치다. 친환경차와 LPG차의 누적 등록 대수가 역전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누적 등록 비중도 친환경차 8.2%, LPG차 7.1%로 지난해 처음 뒤집어졌다.

휘발유차와 경유차 누적 등록 대수(등록 비중)는 각각 1231만 4000대(47.5%), 950만 대(36.6%)였다.

최근 탈탄소 흐름에 맞춰 수요가 급증한 친환경차에 비해 LPG차는 매년 판매가 감소한 것이 누적 등록 대수 역전으로 이어졌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의 통계를 종합하면 2014년 2만 9000대에 불과했던 국내 친환경차 판매 대수는 2015년 3만 2000대, 2016년 5만 2000대, 2017년 7만 5000대, 2018년 9만 3000대, 2019년 11만 대, 2020년 16만 5000대로 꾸준히 늘었다.

2020년대 들어선 판매량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는데, 2021년 23만 2000대, 2022년 31만 8000대, 2023년 40만 6000대로 매년 10만 대 가까이 늘었다. 반면 2014년 14만 9000대에 달했던 LPG 신차 등록 대수는 2018년 11만 8000대까지 떨어졌고, 2020년 12만 6000대, 2021년 10만 5000대, 2022년 8만 6000대, 2023년 6만 7000대로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전동화 전환이 다소 느린 상용차 시장에선 LPG 연료 수요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LPG 트럭은 환경부 측정 결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규제치 대비 20~30%로 현재에 비해 낮다. 그만큼 내연기관 트럭보다 친환경적이라는 얘기가.

또 상용 전기차는 승용 전기차와 달리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가 200km 수준에 불과하고, 충전이 불편해 LPG 트럭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올해부터 대기관리권역 시행에 따라 1t 경유 트럭의 신규 등록이 금지돼 연료비 등 차량 유지비가 저렴하고, 오래 탈 수 있는 LPG 트럭을 찾는 소상공인업자 등은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가솔린이나 디젤차에 비해 출력이나 연비가 떨어지는 점은 LPG차가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하지만 전동화 전환이 다소 느린 상용차 시장에선 LPG 연료 수요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LPG 트럭은 환경부 측정 결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규제치 대비 20~30%로 현재에 비해 낮다. 그만큼 내연기관 트럭보다 친환경적이라는 얘기가.

또 상용 전기차는 승용 전기차와 달리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가 200km 수준에 불과하고, 충전이 불편해 LPG 트럭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올해부터 대기관리권역 시행에 따라 1t 경유 트럭의 신규 등록이 금지돼 연료비 등 차량 유지비가 저렴하고, 오래 탈 수 있는 LPG 트럭을 찾는 소상공인업자 등은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가솔린이나 디젤차에 비해 출력이나 연비가 떨어지는 점은 LPG차가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사우디 '블랏코'와 기술수출 계약

타이어 생산 기술 20년간 지원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는 지난달 28일 사우디아라비아 '블랏코(Blatco)'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융인중앙연구소에서 열린 기술수출 계약식에는 정일택 대표이사 사장, 조만식 연구개발본부장, 사우디 주한 대사 사미 알 사드한을 비롯해 블랏코 회장 압둘라 알와히비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금호타이어는 블랏코에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 지역에 판매되는 승용 타이어 생산 전반에 필요한 기술을 20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블랏코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제조기업으로, 2027년까지 사우디 서부 산업단지에서 약 8만 5000평 규모의 타이어 공장을 완공 및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랏코는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시장에서 타이어 생산 및 판매 등을 통해 모빌리티 사업을 확대

할 계획이다. 정일택 대표이사 사장은 "사우디 아라비아는 중동 최대의 자동차 타이어 시장으로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며 "금호타이어의 사우디 블랏코 기술수출 계약건을 통해 당사 기술 경쟁력을 입증함과 동시에 향후 중동시장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중동시장 생산 판매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말 알 마수드 블랏코 CEO는 "금호타이어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기술수출 계약을 마무리했으며, 내년부터 공장 착공을 시작할 방침이다. 금호타이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품질과 기술력을 확보한 제품 개발 생산에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지난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된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에 참석해 타이어 합작법인 설립 협력 MOU를 체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아, 인증 중고차 방문 예약 서비스 시작

매주 수요일·목요일 하루 10팀

현대자동차 그룹이 인증 중고차 다양한 서비스로 사업을 강화한다.

기아는 4일 중고차 실물을 보고 전문가와 일대일 구매 상담을 할 수 있는 '인증중고차 오프라인 방문예약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오토허브 내 기아 인증중고차 용인센터에서 제공한다.

기아 인증중고차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매물을 검색한 뒤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로 방문을 예약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미리 지정한 매물 내외부를 현장에서 살펴보고 차량 설명도 들을 수 있다. 서비스는 매주 수요일·목요일에 실시하며 하루에 10팀씩 예약을 받는다.

기아는 다양한 방문 고객 혜택을 마련하고 오프라인 서비스 거점을 늘리는 등 서비스를 강화한다

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아는 공식 유튜브 채널 '기아TV'에서 인증중고차 라이브 커머스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에 미쉐린, 한국타이어의 신차용 타이어를 장착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용 타이어 공급을 위해 미쉐린코리아,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차는 중고차를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미쉐린 혹은 한국타이어의 신차용 제품을 장착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는 기존 장착된 타이어 종류에 따라 현대차 인증 중고차에는 한국타이어 제품을, 제네시스 인증 중고차에는 미쉐린 제품을 장착할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교차 적용도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벤츠코리아 '봄맞이 캠페인' ...장기 고객 무상점검·부품 할인 판매

4월13일까지 무료 점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4월부터 차량 무상 점검과 계절성 부품을 할인 판매하는 '2024 봄맞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캠페인 대상은 2021년 4월 13일 이전 등록된 차량이다.

전국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봄철 차량 관리 및 안전 주행에 필수적인 부품에 대해 오는 4월13일까지 무료 점검을 받을 수 있다.

또 공기 정화 필터·에어 필터 등 계절성 부품으로 구성된 '뉴스프링 패키지'를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브레이크 액 등으로 구성된 '브레이크 패키지'를 25%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패키지가 아닌 개별 부품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2024 봄맞이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국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고객이 지난 겨울철 눈, 제설제 등으로 인한 차체 부식 및 손상을 점검하고, 봄철 미세먼지, 황사 등 불순물로 인한 실내 공기 오염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고객들이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손상을 점검하고, 봄철 미세먼지, 황사 등 불순물로 인한 실내 공기 오염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고객들이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LGU+, 제네시스 차량에 'U+모바일tv' 탑재

LG유플러스는 제네시스 시리즈에 차량용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U+모바일tv'를 탑재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 대상은 고급형 6세대 및 cc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된 모델로, 무선(OTA) 업데이트를 통해 인포테인먼트 서비스가 자동 반영된다.

월 7천700원 제네시스 스트리밍 플러스 요금제에 가입하면 별도 구독료 없이 뉴스, 음악, 예능, 스포츠 등 실시간 채널 15개를 시청할 수 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9월 c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담은 현대자동차와 기아 차량에 U+모바일tv를 제공했다.

강종오 LG유플러스 모빌리티사업담당(상무)은 "앞으로도 편의성을 높인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